

'자립도시' 전주, 행복의 경제학 양성

생산·소비 자급자족, 개인·소상공에 경제력 분산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덜 행복한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더불어 공유하여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와 더불어 공동체 정신, 생태, 좋은 먹거리 충족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양성하여 자립도시 전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행복의 경제학을 들 수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경제의 지역화를 말한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규모를 줄이게 되고 또 대기업이 아닌 많은 개인과 소상공인에 경제력을 분산시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모범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손꼽히며, 지혜의 반찬, 희망 줌은 손수레 사업,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 복지정책과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실현, 시민중심의 현장 행정 운영, 생태동물원 조성 등 사람·생태·문화로 대표되는 전주형 정책들을 펼쳐며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복지표 개발, 시민이 원하는 행복 정책

전주시는 자각히 주관적인 행복을 정책화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사람과 도시, 품격의 3개 대법주와 12개 영역과 9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람 범주에는 △소속과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 △공동체 신뢰가 주는 행복 등 4개 행복도 영역, 23개 지표가 개발됐다.

또한, 도시 범주에는 △양육 및 교육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서비스(복지, 보건, 문화, 행정)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안전 및 자연 환경이 주는 행복 △교통 및 이동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33개 지표가, 품격 범주에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 △미래 삶 전망에서 오는 행복 등 3개 영역, 36개 지표가 각

▲행복의 공유 '전주형 공동체 사업'

전주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선순환 독립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4년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조직으로서 국 단위 사회적경제 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공동체 육성사업 등을 전개했다.

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각자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화의 핵심으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중심형 능동적 지원 사업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개발된 행복도 측정결과와 시민행복 견인 가능한 정책개발 및 현재 추진사업의 점검기회로 활용해 가고 있으며, 향후 행복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복영향 평가와 행복조례제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외 복지과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인 온두레 공동체를 259개 선정하여 1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온두레공동체'는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전주형 공동체 사업이다.

전주시는 온두레공동체 외에도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주택 문제 해소하기 위해 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이 지역 내 자원조사와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고 계획하는 원도심 마을계획수립 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온두레공동체 중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노루걸음'과 '동화나라 연구소' 공동체는 '이그나이트 V-korea 대회'에서 각

각 대상과 장려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승수 시장이 공평한 경제활동과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을 책임질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전주형 지역 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왔고 전주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국제행사는 물론 슬로시티 정신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했다.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손도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30~40명이 동네 모정 또는 회관에 둘러앉아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 우리동네 마을이야기와 흥겨운 우리가락 체험, 그리고 전주 슬로푸드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나눠먹는 슬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총 35회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호혜와 연대 나눔을 실현하는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했다. 1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하여 '소셜마켓'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공동 상담회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역 첫 마중길은 물론 민선7기 김승수 시장의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사업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풀, 나무 등 도시의 원래 피부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 행복도시 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증자 독식과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경쟁 구조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거대 기업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켜내는 착한경제 실현 이어달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가장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사람·도시·품격 등 담은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온두레·아파트공동체 등 다채로운 공동체사업 추진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지속가능 도시 신모델 구축

▲세계화의 대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행복의 경제학'

전주시는 공유경제, 지역화폐, 에너지 자립 등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 확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와 세계슬로푸드(슬로어워드)를 매년 개최하며 사람·생태·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세계와 논의했다.

전주시는 국제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가득 찬 덕진공원 전국적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지속된 7일 전주 덕진구 덕진공원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 뒤로 매우 나쁜 수준의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득 차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실버카페 전주에 문 활짝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전북우정청 로비에 마련 '카페우정' 개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실버카페가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지난 6일 전북지방우정청(전주우체국) 로비에 김승철 전북 지방우정청장과 도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장 등 전주지역 기관·단체장과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카페우정' 개업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카페우정은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또, 전북지방우정청은 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카페(로비 1층)를 위한 공간제공과 홍보 등을 지원했다.

전북지방우정청 로비에 들어선 카페우정은 노노우리협동조합이 운영하며 6명의 바리스타와 5명의 수제점 전문가 등 총 11명의 어르신이 근무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까지이며 커피와 수제청을 비롯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전북지방우정청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곳서 근무하게 된 한 실버바리스타(77)는 "아침마다 카페를 방문하는 직원과 손님을 위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이 나이에 바리스타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행운이 내게 와서 너무 행복하다"며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자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경제활동도 계속 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시, 내년 3월까지 출입 전면 통제

전주시는 전주풍패지관 서익헌에 대한 전면 해체보수 공사가 가설 덧집 시공 등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주풍패지관의 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체보수 작업은 지난 2015년 서익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기둥과 처마가 기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거나 굽이 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익헌의 뒤틀림 현상은 1976년 보수공사 당시 기와를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반 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기존보다 무거운 기와를 얹다보니 기둥과 처마가 이를 이기지 못하면서 뒤틀림 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수여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8 전문수사관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결과제도와 함께 2005년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인증 분야를 기존 15개에서 88개로 늘리고 근무경력과 실적 요건을 상향하는 등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 또한 11개 인증 분야에 35명의 전문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했다. 수사, 형사, 생안, 교통, 과학수사 기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배출됐으며 특히, 식품위생, 성폭력, 의료의약사범 등 다년간의 수사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사배타팀들이 선발됐다.

강인철 청장은 전주 라투체에서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수사관들이 앞으로 수사 현장에서 앞장서서 활약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최규호 전 교육감 8년 만에 체포

뇌물수수 혐의... 도피행적 관심사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한 지 8년 만에 검거되면서 도피행적과 배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7일 간이 브리핑을 열고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최소 1년 이상 머문 것으로 보인다"며 "도피가 장기화됨만큼 돈과 휴대전화, 거처 제공 등은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 확장 과정에서 청탁금 3억원 받아 쟁거

김찰은 현재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을 비롯해 교육 관계자 등 다수의 조력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표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찰은 다수의 조력자를 비롯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행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 당시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최 전 교육감은 "최규호가 맞느냐"는 검찰 수사관들의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찰은 최근 최 전 교육감 검거를 위해 친인척과 지인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분석 등 집요한 추적으로 추적 3개월 만에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그를 검거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



골프장 인허가 확장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 전북도 최규호 교육감이 도주 8년 만에 검거된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최규호 교육감을 호송차로 송치하고 있다.

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월에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당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고수가 구속되자 2010년 9월 잠적했다.

김찰은 뒤늦게 최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과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거 전담팀을 구성해 다방면에 걸친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전주지검에 나타난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죄송하다"고 답변 뒤 호송버스에 올랐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2023년 6월 29일이다.

/뉴스